

『동의보감』 내 미용 처방 선별 연구 : 기능과 용법을 중심으로

^{1,2}조가영, ²박효민, ³정원모, ³채윤병, ¹차웅석, ¹김남일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²(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스킨케어연구 디비전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Literature Study on Skincare Related Prescription in 『Donguibogam』 : Focused on Functions and Application Methods

^{1,2}Gayoung Cho, ²Hyomin Park, ³Wonmo Jung, ³Younbyoung Chae, ¹Woongsuk Cha, ¹Namil Kim

¹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Skincare Research Division, AMOREPACIFIC R&D Center

³Acupuncture & Meridian Science Research Center, Kyung Hee University

As Korea's representative medical text, 『Donguibogam』 reveals Korean Medicine's unique perspective on the human body. The text also contains abundant resources related to skin, leading to diverse researches on the subject today. In this paper, authors tried to elicit values of 『Donguibogam』 in the general cosmetics field, through literature review. First, prescriptions related to main functions of modern cosmetics (anti-aging, whitening, and moisturizing) were classified. In relation to anti-aging, concepts such as 返老 (reversing aging), 還童 (to become young again), 皺 (wrinkle), and 皮急 (tense skin) were extracted and 69 examples of treatments were introduced. For whitening care, 41 treatments were mentioned on hyper-pigmentation and general complexion. Concepts related to moisturizing included expressions such as 潤肌膚 (hydration of skin) and 光澤 (glow), induced by 48 treatment prescriptions. Second, cosmetics related prescrip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methods of modern cosmetics. 78 prescriptions of cleansing category included washing-off local area with herbal liquid, bathing, washing-off after steaming, and soaking the body in the herbal liquid. Total of 308 topical application prescriptions covered the conditions of various skin inflammations, scalp illnesses, and etc. In conclus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value of 『Donguibogam』 as a useful of skincare.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the field.

Key words : 『Donguibogam』, prescription, skincare, cosmetics, Korean medical history

I. 서론

화장품 개발할 시 가장 기본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는 피부 관리와 관련된 소재를 탐색하는 일이다. 소재를 탐색하는 작업은 여러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 과거의 의료 경험을 담은 의서의 기록을 고찰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로 범위를 한정하면, 최초의 의학 이론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 한의학 최초의 약물학 서적

으로 평가 받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남북조시대 갈홍(葛洪)이 저술한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 수대 소원방(巢元方)의 저작인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당대 손사막(孫思邈)의 『천금방(千金方)』, 왕도(王燾)의 『외대비요(外臺秘要)』, 송대의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등 의사학적으로 대표성을 띄는 의서들에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임상적 특징과 발병 기전, 적용 처방 등 전문적인 이론이 확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 피부 관리와 관련된 과거의 의료 경험을 고찰하는 선행 연구는 인도,¹⁾²⁾ 중국,³⁾ 이탈리아,⁴⁾ 중

접수 • 2018년 11월 12일 수정 • 2018년 11월 29일 채택 • 2018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동지역⁵⁾⁶⁾ 등 다양한 지역의 인류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계통의 연구는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룹을 한정하여 기록이나 구전 자료들 중 피부 미용이나 모발 관리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 분석해내는 형태가 다수였다. 국내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피부 관리나 화장품 소재 탐색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는 보고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또한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을 해결하는 기능에 관련된 문헌고찰, 피부 노화와 주름 개선에 대한 문헌고찰 등 피부 미용과 관련한 한의학 문헌들을 통합하여 고찰한 예도 있었다.

본 연구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미용 처방을 기능과 용법을 중심으로 선별하는 과정 및 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보고들은, 의서 속의 유의미한 기록을 선별하는 방법이, 수록된 목차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처방의 형태, 특정 효능 등을 한정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이 경우 『동의보감』 전체의 미용 처방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 약재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임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의 배경에 따라 의서 주요 효능의 현대적인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피부 미용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미용 처방을 선별하는 기준을 기능과 용법으로 한정하여 각각에 적절한 검색어와 분석 사례들을 현대 화장품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재들을 나열하는 데에 있지 않다. 『동의보감』 내 미용 처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기존의 전통 지식 기반의 소재 개발 연구들의 근거를 보완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화장품 소재 개발에 유의미한 지식 자원으로서 『동의보감』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연구 대상 및 방법

1)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서로서, 1596년에 왕실의 의사였던 허준이 왕명을 받고 편찬을 시작하여 1613년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백과사전식 의서이다.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한국 한의학의 발전 성과를 집대성한 기록으로서 질병 치료 뿐 만 아니라 양생 및 예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자원을 풍부하게 수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활용되어 왔다. 신체에 관한 내용을 안팎으로 나누어 신체 내부의 생리와 병리를 정리한 내경편(內景編),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외형편(外形編), 내경편과 외형편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병리와 치료법을 수록한 잡병편(雜病編), 가장 주요한 치료수단인 약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인 약물 지식을 실은 탕액편(湯液編), 침·뜸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 침구편(鍼灸編) 등으로 이어지는 편찬 체계는 이 책 고유의 독창성으로 평가받는다.⁸⁾ 또한 이러한 구조는 본 연구에 있어서 피부 미용에 활용된 약재들의 적용 원리와 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유의미하다.

연구자들은 전문가 토론 및 합의를 통해 설정한 개념 범주를 기초로 『동의보감』 원서와 한의학연구원이 구축한 전자데이터베이스를 비교 검색하며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문(門)의 우방과 속방, 그리고 중복된 처방을 제외한 전체 3912개 처방과 2236개 단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진

- 1) Kunda B Patkar. 「Herbal cosmetics in ancient India」. Indian J Plast Surg. 2008;41:134-137.
- 2) Abinash Pratim Saikia, Venkat Kishore Ryakala, Pragya Sharma, Pranab Goswami, Utpal Bora. 「Ethnobotany of medicinal plants used by Assamese people for various skin ailments and cosmetics」. J Ethnopharmacol. 2006;106(2):149-157.
- 3) Li xin Wang, Cai xia Wang. 「Discussion for Research Dire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opical Prescription in TCM Hairdressing」. Journal of Liaoning University of TCM. 2011;13(8):175-176.
- 4) Andrea Pieroni, Cassandra L Quave, Maria Lorena Villanelli, Paola Mangino, Giulia Sabbatini, Luigina Santini, et al. 「Ethnopharmacognostic survey on the natural ingredients used in folk cosmetics, cosmeceuticals and remedies for healing skin diseases in the inland Marches, Central-Eastern Italy」. J Ethnopharmacol. 2004;91(2):331-344.
- 5) Abdel Naser Zaid, Nidal Amin Jaradat, Ahmad Mustafa Eid, Hamzeh Al Zabadi, Abdulsalam Alkaiyat, Saja Adam Darwish. 「Ethnopharmacological survey of home remedies used for treatment of hair and scalp and their methods of preparation in the West Bank-Palestine」.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7; 17(1):355-369.
- 6) Arshad Mehmood Abbasi, M.A. Khan, Mushtaq Ahmad, Muhammad Zafar, Sarwat Jahan, Shahzia Sultana. 「Ethnopharmacological application of medicinal plants to cure skin diseases and in folk cosmetics among the tribal communities of North-West Frontier Province, Pakistan」. J Ethnopharmacol. 2010; 128(2):322-325.
- 7) Namil Kim. 「The significance of Donguibogam registration and its modern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9;15(1):13-22.
- 8) Byoung Soo Kim, Jung Soo Kang. 「Study on the Tri-origin of Asian Medical History Based on the Contents of Dong-Eui-Bo-Gam」.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2(4):746-753.

행되었다.

2) 미용 처방의 범주 구성

본 연구에서는 피부 미용 처방과 관련한 검색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한의학과 화장품화학, 생물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간의 토의를 통해 『동의보감』의 편제 방식 기초하여 신체 부위나 기능, 용법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표 1>과 같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위는 얼굴, 피부, 모발 등 겉으로 드러나며 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위로 한정하였다. 기능의 개념 범주는 서술하는 약물의 효능 및 주치, 적응증이 피부 미용에서 소구하는 주요한 기능인 노화 방지, 피부 미백, 보습 등의 기능과 관련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약물의 용법은 일반적인 피부 미용 방법이나 화장품의 용법과 일치하거나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씻거나(洗) 붙이거나(貼, 付) 바르는(塗) 등의 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에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해 낸 미용 처방의 기능적인 특징과 용법 특징을 현대화장품의 기능 및 유형과 비교하여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의보감』 속 피부 미용 처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표 1. 미용 처방의 범주 구성을 위한 키워드

분류	세부 사항	주요 검색어
적용 부위	얼굴, 피부, 모발, 손, 발 등	面, 皮, 髮, 手, 足
	보습	乾, 澁, 潤, 澤
기능	미백	黥黯, 黑子, 黑靨, 斑子, 黑黥
	주름 및 노화 방지	面皺, 皮聚, 皮急, 返老, 駐顏, 耐老
	외모 관련 기타	光澤, 潤澤, 好顏色, 花色, 美如童顏
용법	약액에 담그거나 씻어냄	洗
	바른 후 제거 혹은 유지	貼, 付, 塗

III. 결과 및 고찰

1. 현대 화장품 분류와 『동의보감』 목차 비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피부 미용 처방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대 화장품의 분류를 『동의보감』의 세부 목차와 연결하여 구성하여 보았다. 한국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상에서 화장품을 목적과 쓰임에 따라 12종으로 분류하고 있다.⁹⁾ 현대 화장품법의 화장품의 분류와 용법, 적용 부위 등이 유사한 『동의보감』의 목차를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12가지 화장품 분류 중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품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의 경우 『동의보감』에서 직접적인 유사 기능과 관련된 목차를 연결하기 어려웠다. 다만 눈과 입술, 수염에 대한 병증을 외형편의 안문(眼門), 구설문(口舌門), 모발문(毛髮門) 등에서 전문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다. 기능성 화장품인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한의학에서 ‘일쇄창(日曬瘡)’이라 하여 과도한 일광손상에 의한 홍반과 피부 손상을 치료하는 개념이 존재하나, 『동의보감』 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화장품 분류 및 기능성 화장품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영역 대부분을 『동의보감』에서 직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아의 초생세욕법(初生洗浴法)이나 피문(皮門), 용저문(癰疽門), 제창문(諸瘡門)의 각종 목욕법, 조두(澡豆), 향비조(香肥皂) 등의 인체 세정용 유형, 면문(面門)이나 잡방문(雜方門)에 서술되는 면지(面脂), 면약(面藥) 등은 목적과 쓰임이 화장품류와 직접적으로 일치한다. 방향용 제품, 두발염색용 제품, 두발용 제품, 체취방지용 제품류는 최종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처방들이 각 목차에 수록되어 있다. 손발톱용 제품의 경우 수문(手門)과 족문(足門)에 수제된 손톱과 발톱의 각종 병증을 치료하는 처방이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Regulations for Enforcement of the Cosmetics Act Article 19 paragraph 3

표 2. 현대 화장품의 분류와 『동의보감』 목차 비교

화장품 유형	종류 예시	동의보감 목차	소목차
영·유아용 제품류	영·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	소아문(小兒門)	갓 태어났을 때 목욕시키는 법(初生洗浴法) 등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 배스	피부문(皮門), 응저문(癰疽門), 제창문(諸瘡門)	씻어내는 약(澡洗藥, 盥洗方, 洗藥, 洗藥方), 목욕하는 법(浴法)
인체 세정용 제품류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면문(面門), 피부문(皮門), 전음문(前陰門), 후음문(後陰門)	조두(藻豆), 향비조(香肥皂), 외음부 씻는 처방(洗滌湯, 洗滌法)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잡방문(雜方門)	향보(香譜),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법(香身法), 의향(衣香)
두발 염색용 제품류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모발문(毛髮門)	흰머리를 물들이는 법(染白烏鬚髮)
두발용 제품류	헤어 컨디셔너, 헤어 크림·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무스·왁스·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	두문(頭門), 모발문(毛髮門)	머리에 생기는 비듬 치료(頭生白屑), 머리카락의 영화로움과 메마름(髮榮枯)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리무버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수문(手門), 족문(足門)	조갑주위염 등(代指, 甲疽瘡)
기초화장용 제품류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메이크업 리무버	면문(面門), 피부문(皮門), 수문(手門), 조문(燥門), 잡방문(雜方門)	얼굴에 생기는 각종 병증(面上雜病), 손과 발이 건조해 갈라지는 증상(手足皸裂) 등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협문(脇門)	액취(腋臭)

현대 화장품 분류는 영유아 제품처럼 대상을 한정 한 것, 목욕용, 인체세정용, 방향용, 인체세정용, 기초화장용, 색조 화장용, 체취방지용 등 목적이나 기능을 한정 한 것, 두발 용 제품, 손발톱용 제품, 눈 화장용 제품 등 부위를 특정하여 분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동의보감』의 편제 체계에서도 부인, 소아처럼 대상을 한정하고, 신체적 구분에 의한 외형편을 따로 두고, 잡병편에서 각각의 병증에 대한 치료 기술을 차례로 구성한 것과 다소 유사한 방식이다.

분석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 대상과 부위를 한정하여 추출하는 것은 전체 처방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피부 미용 기능과 화장품 용법에 관련된 용어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 작업을 우선순위로 작업하였다. 향후 사용 대상이나 부위를 특정하여 미용 처방을 추출해내는 작업에 관하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현대 화장품 기능과 『동의보감』 처방 기능 비교

『동의보감』에서 서술하는 약물의 효능 및 주치가 미용적 기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에서 주로 소구하는 주요한 효능을 세분화하여 『동의보감』 내 키워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일반 화장품보다 특정한 기능을 강조한 화장품을 가리키며, 별도의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근거로 한다. 2018년 현재 기능성 화장품에는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있다.¹⁰⁾

10) Regulations for Enforcement of the Cosmetics Act Article 2

1) 『동의보감』의 노화 방지 인식

『동의보감』의 노화 방지 처방은 협의와 광의 두 기준으로 선별할 수 있다. 협의로는 현대의 기능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과 문자적으로 유사하거나 일치한 효능을 가진 처방을 검색하는 것이다. 광의로는 신체의 노화 방지 및 수명 연장 효능이 기록된 처방 또는 단방 모두를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관련된 주요 검색어는 返老(6회), 還童(6회), 延年(50회), 益壽(17회), 耐老(7회), 駐顏(10회), 童子(3회), 不老(16회), 却老(2회), 皺(6회), 皮急(2회), 顏貌(1회), 美容顏(1회), 充腠理(1회), 長生(14회), 皮聚(3회) 등 이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생성된 주름과 관련된 표현은 ‘피부가 모이다(皮聚)’, ‘피부가 팽팽하다(皮急)’, ‘주름 추(皺)’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효능을 가진 본초의 검색을 통해 적절한 주름 개선 소재를 탐색할 수 있다. 세부 사례는 사군자탕(四君子湯), 팔물탕(八物湯), 과루근(瓜蒌根), 토과근(土瓜根), 울피(栗皮), 만청차(蔓菁子), 대저제(大猪蹄), 녹각(鹿角) 등이 있다.

또한, 광의의 개념인 신체의 노화 방지 및 수명 연장 관련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에는 노화를 돌이킨다(返老), 늙지 않는다(不老), 노화를 이겨낸다(耐老), 노화가 물러나다(却老), 어린이로 돌아간다(還童) 등의 표현이 있으며, 수명 연장의 의미에서 연년(延年), 익수(益壽), 장생(長生) 등이 언급되어 있다. 현대에 많이 쓰이는 표현인 동안(童顏)이라는 단어도 2회 등장하는데, 복령(茯苓)의 효능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面若童顏)’과 황제도용금면방(皇帝塗容金面方)의 효능인 ‘어린아이의 얼굴 처럼 아름다운(美如童顏)’에서 볼 수 있다.

협의와 광의에 의한 『동의보감』의 노화 방지 미용 처방은 총 69례로 32례의 복합 약물 처방례와 35개의 단일 약물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신형문(身形門)에 수록된 사례가 37례로 가장 많았다. 신형문(身形門)에 기록된 노화 방지 및 수명 연장 처방은 내복(內服)을 통해 적용하는 처방이 다수이다. 협의의 피부 주름을 개선시키는 처방은 피취(皮聚)에 사용된 사군자탕(四君子湯), 팔물탕(八物湯) 및 자혈탕(滋血湯)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일 약재의 외용(外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얼굴이나 국소 부위의 주름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인 진단을 요하는 기성 처방의 활용보다는 민간에서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약제로 실용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2) 『동의보감』의 미백 인식

『동의보감』의 미백 치료법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과색소침착과 관련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과 피부에 전반적인 안색에 영향을 주는 처방을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주요 검색어는 黥(33회), 雀卵斑(2회), 黑黧(1회), 斑子(1회), 斑點(1회), 斑點(6회), 黑子(3회), 黑痣(4회), 黧子(3회), 黧炮(1회), 靨子(1회), 顏色(32회), 黧黑(1) 등이다. 총 41례로 파악되며, 이 중 처방 약물은 14례, 단일약물은 26례이다. 면문(面門)의 내용이 36례로 가장 많았다. 범위를 면문으로 한정해 보았을 때, 24종의 단방 약물 중 꿀, 복분자(覆盆子), 녹각(鹿角)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용 처치가 언급되었고, 처방에서는 얼굴의 부종(胃風面腫)과 기미(黥黧)를 치료하는 승마위풍탕(升麻胃風湯)만 내복 처방이었으며, 옥용산(玉容散), 백부자산(白附子散), 홍옥산(紅玉散), 옥용서시산(玉容西施散), 옥용고(玉容膏)는 모두 외용 처방이었다. 내복과 외용을 겸하는 약재는 동과인(冬瓜仁), 웅지(熊脂), 녹각(鹿角) 3가지가 있다. 녹각(鹿角)의 경우 앞서 외용할 경우 ‘피부의 주름을 제거(令不皺)’한다고 서술되어 있고, 하루 두 번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안색이 꽃과 같이 된다(面色如花)’고 기록되어 있다.

3) 『동의보감』의 보습 인식

『동의보감』의 보습 치료는 주치 및 효능에서 피부의 건조(乾, 燥)와 관련된 병증이 포함되어 있거나, 균열(皸裂)과 같이 극심한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관련된 처방, 피부를 윤기 있게 하거나 충실히 하는 효능을 가진 처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潤皮膚(5회), 悅澤(10회), 皸裂(8회), 燥瘡(2회), 潤澤(11회), 光澤(10회)과 肌膚(17회), 皮膚(16회) 등 피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색어들을 검토하였다. 『동의보감』 미용 치료법 중 보습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총 48례이며 총 28례는 복합 처방의 형태로, 단방과 경험방은 19례이다. 조문(燥門)의 내용이 14례로 가장 많았고 면문(面門)과 수문(手門)이 8례 순이었다. 처방류 사례는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 옥용고(玉容膏), 황납고(黃蠟膏), 납향고(臘享膏), 경옥고(瓊玉膏), 사물탕가감(四物湯加減), 이황원(二黃元),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경지고(瓊脂膏), 당귀승기탕(當歸承氣湯), 천문동고(天門冬膏), 지선전(地仙煎), 생혈윤부음(生血潤膚飲), 삼출조원고(參朮調元膏), 자음대보환(滋陰大補丸), 무비산약원(無比山藥元), 신

선기제단(神仙既濟丹), 옥용고(玉容膏) 등이 있다.

보습 처방류의 용법은 내복과 외용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데, 면문(面門)과 피문(皮門), 수문(手門)에는 외용 처방이 다용되고, 조문(燥門)과 내상문(內傷門), 허로문(虛勞門) 등은 내복 처방이 다수를 구성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문(手門)의 각종 외용 처방들은 극심한 추위와 건조로 인한 피부의 갈라짐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수이고, 조문(燥門)의 경우 넓은 범주로 오장육부의 조병(燥病)을 치료하기 위한 복용 처방이 많다.

3. 현대 화장품 용법과 『동의보감』 처방 용법 연구

용법에 따른 미용 처방의 검토는 대표적으로 ‘씻어내는 처방(洗)’과 ‘바르거나(塗) 붙이는(貼, 付) 처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능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검색어를 설정한 후 각각의 용법을 일일이 대조하여 적용 부위와 주지증 등을 고려하여 미용 처방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씻거나 목욕하는데 사용하는 미용 처방

『동의보감』 전체 원문에서 ‘씻다(洗)’를 검색한 경우, 598번이 검색된다. 이 중 많은 수가 본초의 포제 방식을 설명(酒洗 등)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제외하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능이나 부위를 고려하면 78건 정도를 미용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순히 약액(藥液)으로 씻어내는 용법 외에도 목욕(沐浴), 훈증하고 씻는 방법(熏洗), 신체 일부를 약액에 담고 씻는 방법(浸洗), 약액을 끼었으며 씻는 방법(淋洗) 등이 있으며 조두(澡豆)와 같이 이미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된 처방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처방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씻는 약(洗藥 혹은 澡洗藥) 등으로 명명한 경우도 10여건 언급 된다. 안문(眼門)의 눈을 씻는 약(洗眼藥), 피문(皮門)의 조세약(澡洗藥), 전음문(前陰門)의 세담탕(洗滌湯), 후음문(後陰門)의 세치법(洗痔法), 용저문(癰疽門)의 각종 탕세방(盪洗方), 제창문(諸瘡門)의 질환별 씻는 약(洗藥, 洗藥方), 목욕법(浴法), 소아문(小兒門)의 초생세욕법(初生洗浴法) 등이 그 예이다.

표 3. 씻거나 목욕하는 용법의 주요 미용 처방

처방	용법	효능 주치
씻는 약(澡洗藥)	於房內沐浴	治風燥身痒
옥용산(玉容散)	常用洗面	治面上黥黯, 去垢膩
옥용서시산(玉容西施散)	每洗面時用之	治面上一切酒刺風刺
백룡환(白龍丸)	洗面, 如澡豆法	治酒醴滿面紫黑
국화산(菊花散)	洗鬚髮	治鬚髮黃燥, 能令黑潤
세담탕(洗滌湯)	以綿帛蘸湯, 以濕瘡處	療婦人陰蝕瘡
세치법(洗痔法)	先熏後洗	治痔腫痒痛
탕세방(盪洗方)	煎湯溫洗	治癰疽誤入諸毒水
용저탕세법(癰疽湯洗法)	溫洗	一切瘡腫
씻는 약(洗藥)	浸浴熏洗通身	治滿身瘡爛
목욕법(浴法)	浸坐沒頸	治遍身癩瘡
씻는 약(洗藥)	乘溫淋濕患處	治疥癬瘙痒生瘡
온천욕(溫泉浴)	浴	治疥癬
세약방(洗藥方)	淋洗爲妙	有名無名諸惡瘡
향신법(香身法)	煮作湯浴	令人身香去惡氣
조각탕(皂角湯)	洗衣	去垢
향비조(香肥皂)	搓洗手面	去垢膩
초생세욕법(初生洗浴法)	金銀器煎湯洗之	兒少驚

녹두, 팥 등 각종 곡물을 갈아서 만든 가루비누를 뜻하는 조두(澡豆)는 『동의보감』에 모두 3회 언급된다. 백룡환(白龍丸)과 익모초(益母草), 백부자(白附子)의 용법에서 발견

된다. 천궁(川芎), 고본(藁本), 세신(細辛), 백지(白芷), 감초(甘草) 다섯 가지 약재로 구성된 백룡환(白龍丸)은 코 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인 주사비(酒齶鼻)를 치료한다.

향비조(香肥皂)는 그 자체가 비누를 뜻하는 용어이나, 지방산을 알칼리로 중화시켜 만드는 현대의 비누의 제조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 얼굴 외에도 옷에 묻은 때를 제거하는 처방들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인체를 세정하고 청결히 유지하는 일의 의학적 가치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 바르거나 붙이는 용법의 처방

『동의보감』 전체 원문에서 ‘바르다(塗)’를 검색한 경우, 388면이 등장한다. 바르거나 붙이는 미용 처방은 세부적으로 약재를 뿌리거나(糝), 붙이는 경우(付, 貼), 고 형태의 약물을 문지르거나 바르거나 칠하는(搽, 擦, 點) 용법을 가졌으면서 적용하는 부위나 기능이 피부 미용과 관련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르는 용법의 미용 처방은 총 308가지 사례가 확인되었다. 제창문(諸瘡門)에 112개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응저문(癰疽門)에 38가지, 피문(皮門)의 17가지, 면문(面門)의 28가지 약물류를 용법 관점의 미용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부 표면에 약물을 도포하는 형태의 용법은 『동의보감』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병증과 부위에 적용되고 있다. 머리의 하얀 가루(頭生白屑), 모발이 노랗게 바스러지는 증상(鬚髮黃落)을 치료하기 위해 두피나 모발에 직접 바르는 약물, 얼굴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面上雜病)의 치료 처방들, 코에 생기는 부스럼(鼻瘡)이나 주사비(鼻贅), 검은 사마귀(黑痣靨子), 유두염, 액취(腋臭), 두드러기, 땀띠를 포함한 각종 피부염 증상, 손발톱 주변의 피부염, 남녀의 생식기 및 항문 주변 질환, 소아의 두창(痘瘡) 등에 붙이거나 바르는 형태의 외용약이 처방되었다. 특히 앞서 검토한 약액으로 씻어내는 처방보다 전체적인 처방 수 자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면문(面門)의 경우 씻어내는 처방은 단방 포함 7례, 바르거나 붙이는 처방은 단방 포함 28례 이상으로 그 수에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외용법이라고 할지라도 약액으로 씻어내는 처방 보다는 가루를 내거나 고를 만들어 바르거나 붙이는 형태가 일반적인 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바르거나 붙이는 미용 처방 중 면문(面門)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형태는 면지(面脂) 혹은 면약(面藥)이다. 얼굴에 바르는 기름 또는 얼굴에 바르는 약으로 해석 되는데 6회 모두 개별 단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언급된다. 익모초(益母草), 백지(白芷), 고본(藁本), 백부자(白附子), 만형자(蔓荊子), 동과인(冬瓜仁) 등이 그 예이다. 면지(面脂)나 면약

(面藥)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굴에 직접 바르는 용법을 가진 처방으로는 얼굴에 생긴 악창(面上惡瘡)을 치료하는 백련산(柏連散), 유황고(硫黃膏)를 들 수 있다.

3) 기타의 미용 용법

지금까지 씻어내는 처방, 바르고 붙이는 처방 등 기본적인 피부미용 용법과 유사한 『동의보감』 내의 처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 중 피부미용 처방의 용법상의 특징과 유의하여 볼 만한 용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의보감』 미용 처방의 특징적인 용법 한 가지는 다양한 보조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약물의 형태가 가루인 경우 피부에 부착시키기 위한 보조 재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응저문(癰疽門)의 철정란(鐵井欄)이라는 처방은 꿀물에 개서 붙인다. 수정고(水澄膏)처럼 물에 개서 바르는 처방도 다수 있다. 제창문(諸瘡門)에는 돼지의 기름, 저담즙(豬膽汁), 참기름 등에 개어서 붙이는 약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동물성 기름은 豬脂(9회)의 사용이 일반적이고 식물성 기름은 참기름이 가장 많다. 참기름은 麻油(6회),香油(11회), 淸油(4회) 등으로 표현되었고, 단순히 油(11회)로 표현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꿀이나 꿀물(6회), 소금(4회), 계란흰자(4회), 식초, 술, 경분(輕粉), 장수(漿水), 가지즙, 황납(黃蠟), 생강즙, 감초즙(甘草汁), 박하즙(薄荷汁), 차(茶), 달걀노른자(雞子黃), 저담즙, 생지황즙, 사람의 유즙과 침을 사용한 예도 있었다.

이러한 보조 재료를 사용한 것은 1차적으로는 피부 도포를 위한 부착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조재료 자체가 피부에 유효성을 갖기도 한다. 동식물성 기름류는 피부건조를 막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두번째로 『동의보감』 미용 처방의 용법을 중에는 천이나 종이를 활용한 방법이 적지 않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향고(乳香膏)라는 처방은 약들을 고루 갈아 아픈 곳에 붙이되, 쪽물 들인 천으로 싸맬 것을 특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침수고(沈水膏), 나미고(糯米膏), 화류고(化瘤膏) 등은 약을 개서 천에 발라서 붙이는 처방들이다. 남성고(南星膏)와 같이 종이에 발라서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활용법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창문(諸瘡門)에 수록된 납반지(蠟蟬紙)인데, 그 용법을 구체적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蠟蟬紙○治內腫瘡神效. 綿紙疊十二重, 看瘡大小剪成方片, 以紙捻釘住, 另用麻油二兩, 入川椒四十九粒, 慢火

熬黑去渣, 入槐枝四十九寸, 煎枯黑去渣, 入黃蠟一兩, (枯)礬一錢, 輕粉二分, 煆熔化, 卽入前紙令油滲透, 勿令焦黃, 取起, 貼時, 先以藥水洗拭, 用紙齊沓貼上, 以巾繫縛, 周時取下, 近瘡紙一重, 候紙取盡, 則瘡全愈. <入門> 납반지○안쪽에 생긴 염창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12겹으로 접어서 현대의 크기에 맞게 네모나게 자른다. 다음 종이심지로 그 한쪽 끝을 맨다. 그리고 따로 참기름 80 g에 산초 49알을 넣고 약한 불에 검게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버린다. 다음 해나무가지 1치씩 되는 것으로 49개를 넣고 검게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다. 그 다음 황납 40 g, 백반(구운 것) 4 g, 경분 0.8 g을 넣어서 녹인다. 여기에 위의 잘라둔 종이를 담갔다가 기름이 폭 뻘 다음 꺼내는데 종이가 누렇게 될 때까지는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먼저 약수로 현 데를 씻고 말린 뒤에 종이를 겹겹이 현대 불이고 수건으로 동여 매 한 두어 시간 뒤에 풀고 종이를 차례대로 한 장씩 떼어버리면 현대가 완전히 낫는다.”¹¹⁾

종이나 천을 활용한 미용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외부 오염이나 자극으로부터 환처를 보호하기 위함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포된 약물의 약효를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물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피부와 밀착 시킨 상태로 흡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화장품용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미용액이 담지된 시트를 얼굴에 부착하는 마

스크류를 들 수 있다. 시트의 재질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면섬유나 부직포, 고분자 하이드로겔, 바이오 셀룰로오즈, 고무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특히 납반지(蠟礬紙) 사례와 마찬가지로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약액과 기름이 폭 배도록 담갔다가 피부에 부착하고 떼내는 방식은 현대의 시트마스크의 제조법 및 미용법과도 매우 큰 유사성을 볼 수 있다.

4. 현대 화장품 유형과의 비교

1) 기능적 비교

고찰을 통해 『동의보감』의 미용 처방이 서술하는 주치 및 효능과 화장품의 기능 카테고리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이 서적이 질병과 건강 관점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현대 피부 미용과 화장품과학의 주요한 카테고리까지 폭 넓게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화 방지, 피부 미백, 보습 치료 각각에는 한의학적인 생리 병리 이론과 실용적인 치료 방법들이 특징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일차적인 화장품의 기능인 피부 보습을 기본으로, 주름 및 색소침착과 같은 국소 부위의 병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안색의 매력을 높이고,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면에서 화장품의 기능 카테고리라 『동의보감』의 문헌 효능과의 높은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표 4. 『동의보감』 문헌상 효능과 현대 화장품 기능 비교

화장품 기능 분류	『동의보감』 문헌 기반 효능
노화 방지 전반	返老還童, 面如童子, 顏如童子, 耐老延年, 延年益壽, 顏貌不衰, 烏鬚髮, 美容顏, 駐顏不老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	面色如玉, 面如花色, 面淨如玉, 去面上黑子瘰肉及粉刺, 入膚體如繪帛去黥黯黑子, 好顏色悅澤人面, 去黑痣靨子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	令皮肉急縮可展老人面皺, 面皮急矣, 光潤皮急百日光華射人, 療手面皺
피부 건조에 도움	治風燥身痒, 皮膚潤澤, 治燥證, 治燥病, 治皮膚拆裂, 治手足爪甲枯燥搔之屑, 治皮膚乾燥以此潤之, 令人肥白悅澤
피부 건강 증진	治面上熱瘡或斑點, 治年少氣盛面生皰瘡, 治面目浮腫

2) 용법 비교

『동의보감』에 수재된 미용 목적 처방을 용법 중심으로

씻어내는 용법을 가진 처방과 약물을 바르거나 뿌리거나 붙이는 등의 용법을 가진 미용 처방을 분석하였다. 제조 형태,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세부 용법들이

11) Jun Heo. 『Donguibogam』. Seoul:Bupin Publishes Co. 1999:1500.

발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현대 화장품 유형과의 공통점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화장 방식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용법에 따른 화장품의 유형에 대한 고찰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잘 알려진 백분(白粉)이나 연지(燕脂) 등의 활용을 감안하더라도 산업화 이전의 생활용품은 천연에서 얻은 것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가공한 단순한 형태로 사용했을 것

이라는 선입견이 다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의보감』에 나타난 미용 처방들의 세부 용법들과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파우더 세안제, 나이트 크림, 마스크팩, 입욕제, 페이스 오일과 헤어 오일 등 현대 화장품 유형만큼이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용법들이 『동의보감』 속 지식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동의보감』 처방 용법과 현대 화장품 유형 용법과의 비교

처방 및 단방	현대 화장품유형	공통점
玉容散, 玉容西施散 益母草, 白附子	파우더 세안제	안면을 비롯한 인체 세정에 사용함, 입자가 고운 가루 형태
香肥皂	비누	손과 얼굴을 비비고 씻는다.
白附子散, 紅玉散, 玉容西施散, 玉容膏 白茯苓, 眞珠, 栗皮, 鹿角	마스크팩	자기 전 얼굴에 펴 바르고 아침 세안 시 미온수로 씻어냄 가루와 액상을 혼합하여 고루 바름
鰻鱺魚 熊脂, 蔓菁子	페이스 오일	동물 혹은 식물에서 얻은 미용 기름
胡桃, 胡麻, 生尙烏雲油 金珠綠雲油	헤어 오일	식물에서 짜내거나 약재를 담가 우려낸 기름을 두피와 모발에 도포
澡洗藥	입욕제	쾌적한 목욕을 위해 넣어 쓰는 화장품
蠟礬紙	시트마스크	약액이 흡수된 종이를 피부에 덮어 씌
鹽湯, 漿水	화장수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는 액체상의 기초 화장품

IV. 결론

『동의보감』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 치료법들을 대상으로 기능과 용법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기능적으로는 화장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보습과, 대표적 기능성 향목인 미백, 노화 방지와 관련된 범주의 처방들을 살펴보았다. 용법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화장품의 용법 특징 두 가지의 연장선상에서, 씻어내는 처방과 바르거나 붙여서 피부에 유지시키는 처방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동의보감』에서 피부 미용과 관련한 처방을 종합한 연구로, 기능과 용법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한의학 처방의 실용성과 전문성 양 측면에서의 의의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록된 기능과 용법 키워드를 기준으로 선별 시, 기능 기준으로는 239건의 복합처방과 단방이, 용법적으로는 507건의 복합처방과 단방이 직간접적으로 피부 미용과 연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한의학의 분야에서의 미용 의학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Jun Heo. 『Donguibogam』. Seoul:Bupin Publishes Co. 1999.
2. Li Fei Huang. 『Esthetic Chinese Medicine』. Taipei:Wen Kuang Publishing Company. 2004.
3. Xin Guo, Ying Yuan. 『Cosmetic Chinese Medicine』.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s. 2010.
4. Bong-Keun Song, Jin-Hee Won, Sungchul Kim. 「Historical Medical Value of Donguibogam」. Journal of Pharmacology. 2016;19(1):16-20.
5. Dong-Uk Jeong, Byeong-Yun Chae. 「A Literatural Consideration on a Medicine for External Applicotion on Chloasma」.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1989;2(1):33-40.
6. Dong-Woo Lee, Jin-Ung Baek. 「A study on analyzing the terms describing anti-aging effects in Donguibogam to propose the methodology for selecting medicinal herbs related to anti-aging effects」.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4;27(2):25-48.

7. Hyun-Jung Cheon, Kyung-Eun Chang, Young-Ok Moon, Kyung-Soo Keum. 「A study on Chinese medicines of 『Dongeuibogam』 used for the face skin ailm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10;16(1):105-133.
8. Jin-Myoung Kim, Sun-Woo Jeon, Woo-Geon Lee, Hae-Jeong Nam, Yoon-Bum Kim. 「Study of Preventing Methods for Skin Aging and Wrinkles」.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0; 24(4):533-542.
9. Namil Kim. 「The Significance of Dongeuibogam Registration and Its Modern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9;15(1):13-22.
10. Sung-Kyu Park, Wung-Seok Cha, Namil Kim. 「The perspective on humans in a view of Oriental Medicines—discussion based mainly on 『Dongeuibogam』」.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8;21(2):13-28.
11. Yun-Jung Hong, Ji-Chung Song, Hyun-Ah Shim, Kyung-Soo Keum, Si-Hyeoung Lee. 「A Study of external ointment treatment in 『Dongeuibogam』」.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0;23(3):84-108.
12. Korean Medicine DB. Korea: KIOM; Available from: <https://www.medicclassics.kr/>.